

LG화학, 美 큐 바이오파마와 맞손

차세대 '면역항암제' 새시대 연다



후보물질 신약 3개과제 공동개발
아시아·非아시아 지역나눠 진행
LG화학, 아시아 지역 권리 독점

LG화학이 차세대 항암제인 면역항암제 개발에 뛰어 들었다.

LG화학은 미국 보스턴 '큐 바이오파마(CUE Biopharma)'의 전임상, 후보물질발굴 단계의 면역항암제 신약 과제 3개를 공동개발 한다고 12일 밝혔다. 면역항암제는 체내 면역체계를 자극해, 활성화 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항암제를 말한다.

큐 바이오파마는 면역치료 분야 신약 개발을 위한 혁신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암, 자가면역 및 만성감염질환 치료제 개발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미국 나스닥 상장회사다.

이번 파트너십에 따라 큐 바이오파마는 아시아권(LG화학)과 비 아시아권(큐

바이오파마)으로 지역을 나눠 공동개발 및 상업화를 진행하고, LG화학은 아시아 지역 권리를 독점으로 확보한다.

LG화학은 지분투자, 계약금, 개발 및 상업화 성취도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 등 최대 약 4억 달러를 큐 바이오파마에 지급하며, 상업화 이후에는 아시아지역 매출에 따른 단계별 로열티도 지급하기로 했다. 또 LG화학은 이번 계약 후 2년 내 전세계 상업화 권리를 바탕으로한 파트너사의 신약 과제 1개를 추가로 도입할 수 있는 옵션(약 5억달러 규모) 권한도 확보했다.

이번 파트너십은 큐 바이오파마의 혁신 기술과 LG화학의 신약개발 역량이 합쳐지면 글로벌 항암 시장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전략적으로 이뤄졌다.

큐 바이오파마는 현재 혁신적인 신약 개발 플랫폼(Immuno-STAT)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플랫폼 기술은 면역세포인 T세포를 선택적으로 조절하도록 설계된 혁신 바이오신약 기술이다.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특정 암세포 조각인 항원의 정보를

면역세포인 T세포에 전달해 T세포가 해당 암세포를 인지하고 공격하게 만들어야 한다. 큐 바이오파마가 가진 기술은 환자의 T세포를 체외로 추출해 면역력을 활성화 시킨 후 체내에 재주입하는, 기존 T세포 치료법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LG화학은 바이오의약품, 합성신약, 백신 등 폭넓은 의약품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제조공정·품질관리(CMC)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이에 대한 성과(임상시료 개발, 상업화 생산 등) 수준에 따라 파트너사로부터 로열티를 지급 받게 된다.

송지웅 생명과학사업본부장은 "큐 바이오파마의 혁신적인 선택적 T세포 조절 기술과 LG화학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생산 역량이 합쳐진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암환자들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댄 파세리(Dan Passeri) 큐 바이오파마 대표 겸 CEO는 "LG화학의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분야 임상개발 역량은 큐 바이오파마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광동제약 임직원과 가족들이 지난 10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을 찾아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광동제약, 취약가정에 연탄 1400장 전달

광동제약은 임직원과 가족 등 60여 명이 지난 10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을 찾아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광동제약은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백사마을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등 난방취약 가정에 연탄 1400여 장을 전달했다.

백사마을은 가파른 산자락 아래 위치하는데다 길이 좁아 집 앞까지 차량이나 손

수레의 접근이 어려운 곳이 많다. 또 고령 등으로 인해 겨울철 난방에 필수인 연탄을 직접 준비할 수 없는 소외 이웃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올해 광동제약 임직원은 백사마을 중에서도 고지대에 위치해 접근성이 취약한 가정들을 주로 찾았다. 이들은 지계에 연탄을 싣고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내리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세경 기자

혈압 등 4개 요소 변동면 치매발병 1.2배 ↑

여의도성모병원, 294만명 조사

혈압, 포도당, 콜레스테롤, 몸무게 등 4가지 요소 중 한가지의 변동성이 큰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1.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김미경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코호트에 등록된 성인 293만816명을 대상으로 생물학적 매개변수의 변동성이 치매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알츠하이머 연구 및 치료'(Alzheimer's Research & Therap

y) 최근호에 게재됐다.

연구 참여자는 2005~2012년 3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았고, 연구 시작 시점에서 치매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병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연구팀은 조사 참여자의 치매 발생 여부를 2015년까지 추적 조사했다.

이 결과 약 5.5년의 조사 기간에 1.12%(3만2901명)에서 치매가 발생했다. 이 중 74.4%는 알츠하이머 치매였으며, 11%는 혈관성 치매였다.

주목되는 건 연구팀이 관찰한 4가지 요인의 변동성이 클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았다는 점이다. /이세경 기자

한식 아이템 변화... "불황속 안정 잡아라"

본도시락

해물·닭 등 찜도시락 3종 출시

고기한끼

삼겹살 한근+반찬 '2만원대' 저렴

풀잎채

전복 메인 '고복식당' 퓨전 한식



연안식당의 꼬막비빔밥 /디딤



찜도시락 /본아이에프

한식이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식은 한국인이 가장 즐겨찾는 음식이다. 식재료에 따라 전문화할 수 있는 영역이 넓으며, 발전 가능성도 많아 꾸준한 유망 창업 아이템으로 손꼽히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한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만 약 1600개에 달한다. 이미 포화상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유행을 타지 않고, 고객도 꾸준해 안정적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에게는 여전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이같은 한식 브랜드들도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해지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가성비, 가심비 반영은 물론 창업자를 위한 운영의 효율성까지 높인 게 특징이다.

프리미엄 한식도시락을 표방하면서 집밥에 대한 향수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브랜드는 본도시락이다. 제철 채소와 나물 등 한국인의 몸에 가장 잘 맞는 자연

의 먹거리가 더해지면서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에 치저 있는 현대인들에게 건강 한끼를 제공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본도시락은 또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 서 따뜻한 한식 요리인 찜을 그리워하는 고객을 위해 해물찜과 닭찜을 도시락으로 구현한 찜도시락 3종을 선보였다. 도시락 창업시장에서 발빠른 메뉴개발도 창업자에게는 장점이다.

삼겹살 곱빼기 배달전문 프랜차이즈 고기한끼는 불맛과 육즙이 살아있는 최고 품질의 삼겹살을 넉넉히 주는 양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브랜드다. 삼겹살 600g이 넘는 양에 야채와 반찬을 곁들여도 2만원대로 저렴하다.

풀잎채가 운영하는 고복식당은 전복을 메인 식재료로 한 퓨전 한식 전문점이다. 매장에서 직접 뽑아 쫄깃한 면발에 프리미엄 보양식 전복죽까지 제

공하는 '수제 냉면'이 시그니처 메뉴다. 그래서 '전복죽 주는 냉면집'으로도 알려져 있다.

디딤이 운영하는 연안식당은 꼬막비빔밥 전문점이다. 최근 론칭 1년여 만에 100호점 계약을 완료했다. 연안식당은 꼬막비빔밥 외에 밴댕이회 비빔밥, 멧개비빔밥, 회무침, 해물탕 등 신선한 해산물을 바탕으로 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는 브랜드다. 여수, 벌교꼬막과 영양이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식사와 술자리에 어울리는 다양한 해산물 메뉴를 보유하고 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전복내장죽과 물냉면 /풀잎채

휴온스글로벌, 3분기 연결매출 1천억 돌파

전년비 16.8% ↑ ... 당기순익 214억

휴온스글로벌이 처음으로 3분기 연결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휴온스글로벌은 올해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16.8% 오른 1003억원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09억

원, 21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42.8% 각각 올랐다.

휴온스글로벌의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은 주요 자회사인 '휴온스'가 국내·외 제약 사업에서 안정적인 성장으로 실적 상승을 주도한 덕이다. 휴온스는 올해 3분기에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전년 대비 15.8% 오른 863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134억원, 당기순이익 13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2%, 41.5% 올랐다.

'휴메딕스'도 에스테틱 사업 매출이 증가하며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기 사업을 전개하는 '휴메나'와 소독제 사업을 영위하는 '휴온스메디케어' 등 자회사들도 동반 성장하며 실적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휴온스글로벌은 자회사들의 사업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력 품목인 보틀리눔 독신 '휴독스주'의 '미간주름 개선'에 대한 국내 임상 3상 시험도 성공적으로 종료하는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이세경 기자

한미약품, 금연캠페인 확대 운영

금연치료제 '노코틴' 출시 기념

한미약품그룹은 금연치료제 노코틴 출시를 기념해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사내 금연캠페인을 전사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한미약품이 이달 출시하는 이달 출시되는 노코틴은 바레니클린 성분 중 유일하게 옥살산염으로 허가받은 금연치료제로, 한미약품 제제기술로 단독 개발한 전문의약품이다.

그동안 한미약품은 사내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임직원에게 장려금 또는 축하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나, 이달부터는 장려금(사내 복지포인트) 지급과 함께 금연 성공자인



한미약품 금연캠페인

원수만큼 후원기금(회사 부담)을 조성해 취약계층에 이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이번 노코틴 발매에 따라 정부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쓰이는 금연치료제(전문의원약품) 2종 모두를 보유한 제약회사가 됐다. 나머지는 FDA 승인을 받은 부프로피온염산염 성분의 금연치료제 '니코피온서방정'이다. /이세경 기자

동원F&B

'뽀로로 참치' 출시

동원참치와 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로로가 만났다.

동원F&B는 어린이 맞춤형 참치캔, '동원 뽀로로 참치(사진)'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뽀로로는 지난 2013년부터 방영된 국산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의 주인공 캐릭터로, 영유아 자녀들과 부모들 사이에서 '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다. 최근에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인기 캐릭터로 자리잡고 있다. 뽀로로 애니메이션은 국내 애니메이션 사상 최대 기록인 세계 130여개국에 판매됐다. '동원 뽀로로 참치'는 아이들의 성장과 두뇌발달을 위해 어린이 맞춤형으로 개발된 참치캔이다. 참치캔은 지난 2014년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어린이들의 성장 발달을 위해 꾸준한 섭취를 권장하는 건강권고안을 발표할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 식품이다. /박인용 기자

